

제10권 16호

2020. 8. 3~2020. 8. 16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핀테크 금융혁신과 오픈뱅킹의 과제 |
| 이슈분석 |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동차 부품 업계 |
| 금융경영브리프 | 美 은행 실적 양극화, 상업은행 부문 vs. 투자은행 부문
포스트 코로나, 유럽 프라이빗 뱅크 생존 전략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우호적인 수급이 채권 강세를 견인
외 환: 해밀턴 모멘트, 유로화 회복의 시작?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이화정(hj_lee89)
연구원 조재범(bum123123)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핀테크 금융혁신과 오픈뱅킹의 과제
- 04 **이슈분석**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동차 부품 업계
- 08 **금융경영브리프** 美 은행 실적 양극화, 상업은행 부문 vs. 투자은행 부문
포스트 코로나, 유럽 프라이빗 बैं크 생존 전략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우호적인 수급이 채권 강세를 견인
외 환: 해밀턴 모멘트, 유로화 회복의 시작?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핀테크 금융혁신과 오픈뱅킹의 과제*

남 주 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namjh@sogang.ac.kr)

금융과 4차 산업의 융합으로 금융혁신이 전개되고 있다. 핀테크 금융혁신은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전개된 5차 금융혁신에 해당된다. 핀테크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입한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후생 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심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확장형 오픈 뱅킹인 동시에 공동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시장중심 접근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핀테크 금융혁신의 의의와 과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금융과 4차 산업의 융합으로 금융혁신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관련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업 및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 생산과정에서의 원가 절감, 거래비용 축소, 경쟁 촉진으로 인한 금융경쟁력 제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편의 및 후생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탄생을 예상된다. 핀테크의 업무 범위가 넓고 발전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ICT 기술을 금융부문에 융합하는 좁은 의미의 핀테크 금융보다는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인 ICT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즉 핀테크 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국내 주요금융혁신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핀테크 금융혁신은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전개된 5차 금융혁신에 해당된다.

금융과 4차 산업의 융합으로 금융혁신 전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노력으로 핀테크 금융혁신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자율 기반의 혁신이 미흡하고,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금융혁신은 금융안정을 침해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존속형 혁신(sustaining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핀테크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할 필요

innovation)보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금융혁신과정은 소위 “bottom-up approach”로 “금융상품 혁신 → 금융시장 혁신 →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top-down approach”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주도로 “금융안정 장치 마련 →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혁신 → 금융상품 혁신”의 소위 존속형 혁신을 추구하여 기존 금융시장의 경쟁구조와 시장 지배력의 획기적인 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핀테크 금융혁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시장, 금융구조, 금융기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철폐가 필요하다.

∴ 오픈 뱅킹과 금융혁신

최근 도입한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후생 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심화 계기

최근 도입한 오픈뱅킹도 이러한 핀테크 금융혁신을 주도하면서 금융경쟁 심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그리고 핀테크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은 2019.10.30일부터 은행권(10개은행)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12월 18일에 전면시행으로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72개 기관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기관은 향후 제2금융권으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금융회사의 소유로 인지되었던 것을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주체) 데이터의 자기결정권(개인정보이동권)을 강화하여 정보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확장형 오픈뱅킹인 동시에 공동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더 긍정적인 성과를 예상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오픈뱅킹정책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이동권과 열람권의 보호 및 보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권익과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 바 있다. 다만 한국형 오픈뱅킹은 제공서비스 측면에서 외국처럼 단순히 데이터 내역이 전송되는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등 조회 중심에서 벗어나 입출금 이체기능을 포함한 확장형 오픈 뱅킹을 지향하면서 공동형(Shared)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이후 현재(2020.6월 기준)까지 가입자는 2,032만명, 계좌등록은 4,398만좌(누적)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자는 은행이 21%를, 핀테크 업체는 79%를, 등록계좌는 은행이 36%, 핀테크업체가 64%를 각각 차지하

고 있다. 이용현황에 의하면 API 이용건수는 월간 1억 9천만건(일평균 659만 건), 누적 10억 5천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은행은 잔액조회(84.5%)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는 출금이체(82.5%)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현재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오픈뱅킹의 과제

첫째, 오픈뱅킹 도입과정에서 한국의 접근방식이 외국(영국)과 달리 은행 중심으로 출발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가 표준화 및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실행기구로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하여 시장 자율 기반의 오픈뱅킹을 추진하였으며, 지급결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기관(영란은행, Pay.UK)은 오픈뱅킹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은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오픈뱅킹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장점은 있으나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강조하여 핀테크 기업보다 10개 은행들이 시범적으로 2개월 먼저 시행하였다. 핀테크 기업들의 출발이 늦어져 대형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계속 유지되는 존속형 혁신에 그칠 수 있다. 한국형 오픈뱅킹도 영국처럼 시장에서 핀테크와 은행간의 경쟁, 핀테크와 은행간의 융합으로 대형은행과 공정 경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오픈뱅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금융결제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 및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보다 시장중심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오픈뱅킹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장점이 있지만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이 필요

둘째, 보다 근본적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오픈뱅킹의 성과에 의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간의 경쟁 심화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오픈뱅킹 이후 현재까지 금융회사간 자금이동이나 예금이동이 미미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기본적인 종합플랫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뱅킹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마이데이터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결국에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의 융합과 결합이 금융서비스의 차별화와 미래의 금융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가 중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동차 부품 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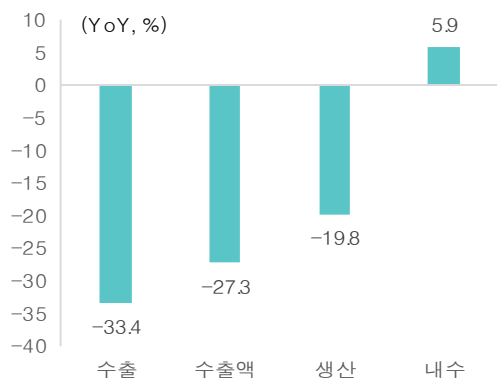
김 동 한 수석연구원(vipdhk@hanafn.com)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수판매는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에 따른 국내 생산은 물론, 해외 생산 역시 큰 폭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완성차 메이커의 경영 위기가 자동차 부품사로 전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 분석 결과 중소 자동차 부품사, 차체용·전기장치 부품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취약하고,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 부품사 가운데 영업적자 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이 막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내수판매는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해외 공장의 생산 악화가 뚜렷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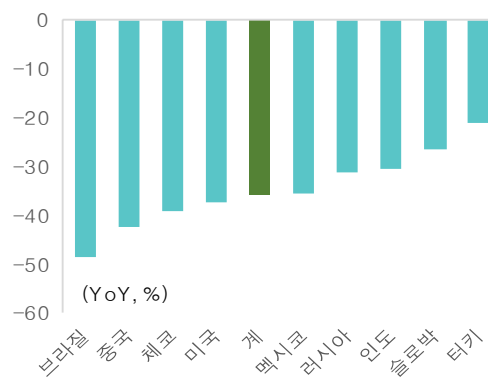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80만 2,529대를 달성
- 반면, 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한 82만 6,710대로 부진
- 결과적으로 내수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 국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만 7,534대에 그침
- 또한, 각국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외출 자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해외 판매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해외 공장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

■ 국내 자동차 내수/수출/생산 증가율 동향



주 : 2020년 상반기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현대차그룹의 국가별 해외생산 증가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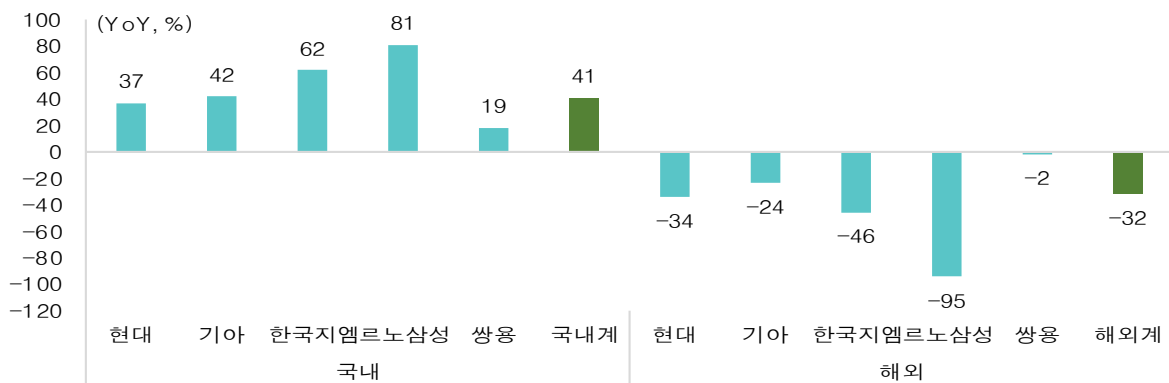
주 : 2020년 1~5월 누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이 큰 폭 감소했는데, 5월 해외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1.1% 감소한 15만 7,598대, 1~5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한 102만 8,284대를 기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완성차 메이커의 경영 위기가 자동차 부품사로 전이되고 있음

- 차량의 개발과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완성차 메이커에 종속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가능케 하는 강점을 지님
- 그러나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높은 실적 의존도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외감이상)의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4조 9,651억원을 기록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국내외 생산공장 차질,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68억불 기록
- 상반기 자동차 내수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수출은 33.4%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M, A/S 관련 매출 감소보다는 수출 관련 매출 감소 영향이 1분기 자동차 부품사의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한 저신용 부품사들은 협력업체 지위를 반납하고 공장 문을 닫는 등 자진해서 사업장 폐쇄를 선택하는 상황
- 지난 6월 17일 2차 협력업체인 명보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1차 협력업체인 동국실업, 세원E&I, 리어코리아 등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 2020년 6월 완성차 메이커별 국내 자동차 판매 증가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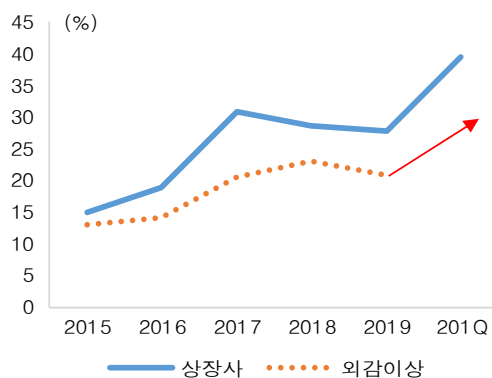
주 : 해외 = 수출 + 해외 공장 생산 현지 판매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6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지만, 해외판매가 동 기간 31.9%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 증가율은 -18.6%에 그쳤는데, 이로 인한 생산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중소 부품사의 경영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결국 코로나발 매출 충격 하에서 중소 부품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동성 위기가 예견되는 부품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 분석 결과 중소 부품사, 차체용·전기장치 부품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취약하고,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 부품사의 영업적자 비중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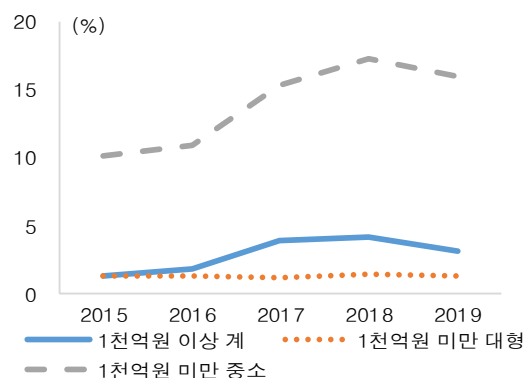
- (성장성) 중소 부품사는 2016~19년까지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으며, 2020년 1분기는 +0.2%로 전년 수준을 기록
- 2015~20년 1분기까지 동력전달장치 부품 제조업만 유일하게 매출액이 감소했고, 2020년 1분기에는 차체용 부품 제조업이 가장 큰 매출액 감소폭을 보임
- (수익성) 코로나19 사태는 중소 부품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차체용·전기장치 부품 제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상태
 - '20년 1분기 차체용·전기장치 부품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5%, -1.2%
- (적자기업) 외감이상 기업 중 영업적자 기업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19년 20.7%로 다섯 중 한 기업이 영업적자 상태이며, 특히 매출액 1천억원 미만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17.6%)이 1천억원 이상(3.1%) 보다 높게 나타남
- 상장사 중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도 2019년 27.7%로 높은 편이고, 2020년 1분기에는 39.6%를 나타냄
- 이에 따라 외감이상 기업 중 영업적자를 기록한 비중도 2019년 20.7%에서 2020년 1분기에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 자동차 부품사의 상장사/외감이상 영업적자 비중 동향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동차 부품사의 매출액 규모별 영업적자 비중 동향



자료 : Kis-Value

■ 코로나19 영향이 막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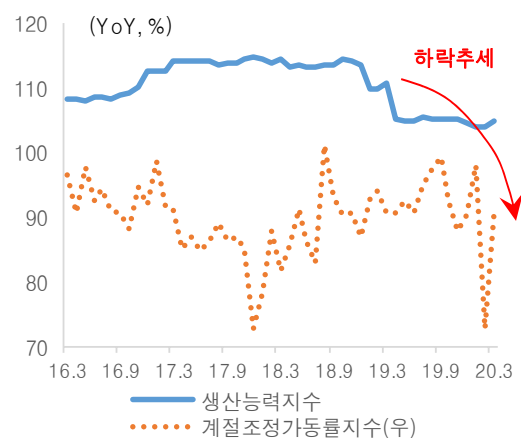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기 수준은 2017년 회복에서 호황을 지나 2019~20년 둔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생산능력과 가동률도 계속 하락 추세
-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국내 고용 24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주력 산업이지만 부품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¹¹
-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해외 완성차 메이커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자동차 부품사는 수주 감소 및 자체적인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
- 이처럼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난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를 다시 외부 부채로 충당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자동차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품사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어 부품사들이 국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중소 부품사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업계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차체용·전기장치 관련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 부품사를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5**

■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기 동향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생산능력과 가동률 동향



자료 : 통계청

[1] 김보수(2019), “자동차부품산업 금융애로 및 개선방안,” 중견기업연구원

美 은행 실적 양극화, 상업은행 부문 vs. 투자은행 부문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미국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은 상업은행(CB) 부문 수익이 대폭 축소된 반면, 투자은행(IB) 및 트레이딩 부문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각각 경기 침체를 대비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와 주식시장 호조 및 기업들의 증권 발행 등 자금 확보 움직임 등이 원인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2분기 금융시장 호황과 대출수요 증가로 기대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상업은행 부문 수익성 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IB 부문 위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美 은행의 2분기 실적은 상업은행 부문이 부진한 반면 IB부문이 개선되는 등 양극화¹⁾

- 웰스파고, BoA, 씨티그룹 등 상업은행들의 2분기 순이익 하락폭이 최대 138%까지 확대되는 등 부진한 모습
 - 美 대형은행 중 웰스파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분기 손실(2.4조\$)에 직면
- 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의 매출은 오히려 급증했으며, 주당순이익(EPS)도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
 - 모건스탠리의 2분기 매출은 13.4조 달러, 순이익은 3.2조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 45% 증가했으며, 주당이익도 2.05달러로 전년 동기 수준(1.23\$)을 상회

■ 경기침체를 우려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수익 감소, 기업들의 자금 확보 러시로 인한 관련 부문 실적 호조가 부문 간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실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상업은행 수익이 감소
 - 美 주요은행 대손충당금('19년 2Q→'20년 2Q, 억\$): 웰스파고 5→96, 씨티그룹 20→79, BoA 9→51, JP모건 11→104)
- 자금난을 우려한 기업들은 채권, 신주발행, 기업공개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의 IB 및 트레이딩 수익이 급등
 - 2분기 골드만삭스의 중개 수익은 각각 최근 9년, 11년래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모건스탠리도 채권 및 주식 트레이딩 매출이 각각 전년동기비 168%, 23% 증가

[1] "Bank Earnings: Main Street Blues vs. Wall Street Boom", WSJ, 202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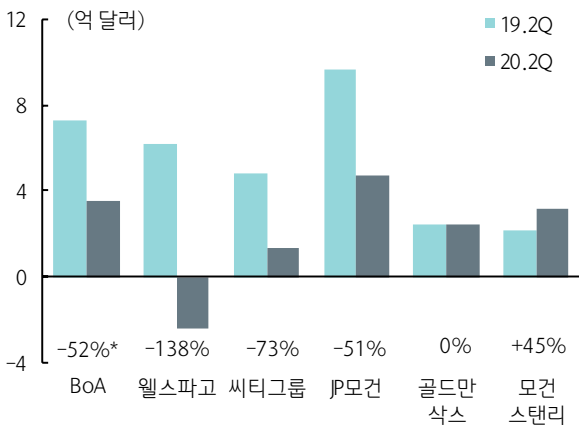
■ 美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가중 속 IB 및 트레이딩 부문의 호황 지속 여부에 유의

- 상반기 IB 부문은 美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증권 발행 증가로 유례없는 호조를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실적 호조 지속에 의문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의 금융시장 전이를 막았으나, 증시급등과 같은 금융시장 과열을 초래
- 트레이딩 부문 역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주가 상승세가 제한될 경우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 또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 이후 美 상업은행의 신용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상업은행 부문의 수익감소가 지속될 우려

■ 국내 금융사들은 상업은행 및 IB 부문 실적 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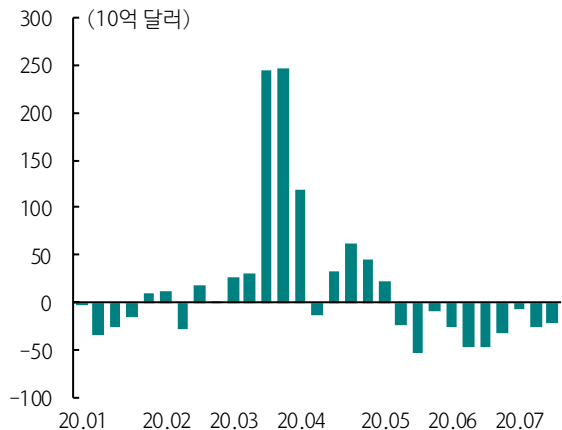
- 금융시장 호황과 대출수요 증가로 2분기 국내 금융사는 기대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기업대출 감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글로벌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고 기업수익 악화로 인해 기업대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증권 발행시장 둔화 및 부동산 금융시장 위축 등 IB 부문의 수익 감소 가능성에 유의
 -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및 해외 IB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급변에 따른 트레이딩 부문 수익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 

■ 주요 미국은행 2분기 순이익 현황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각 사 IR 자료

■ 美 상업은행 신규증가 신용 추이



주 : 대출 및 리스 포함
자료 : Federal Reserve

포스트 코로나, 유럽 프라이빗 뱅크 생존 전략

조재범 연구원(bum123123@hanafn.com)

유럽 프라이빗 뱅크는 낮은 관리자산 성장률과 비용관리 실패로 지난 10년간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유럽 프라이빗 뱅킹 산업은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충격으로 장기 침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McKinsey는 유럽 프라이빗 뱅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3단계 전략 우선순위와 9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고객 선호와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도록 옴니커뮤니케이션 채널 등 채널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유럽 프라이빗 뱅킹은 지난 10년 동안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점이 필요!

-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세계적으로 은행 이익 중 가장 높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수익 대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
- 특히, 유럽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관리자산의 저성장과 비용관리 실패로 지난 5년간 이익 성장률이 연 평균 -1%를 기록
 - 관리자산(AUM) 성장률은 최근 5년 평균 2.5%로 10년 전인 5.8% 대비 절반 수준
 - '19년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12년도 이후 최대치인 71%를 기록했으며, 총 102개의 부킹 센터(booking center) 중 22개는 100%를 초과
 - * 부킹 센터(booking center)는 미들-백 업무까지 총괄하여 담당하는 지역 거점
- 관리자산 저성장의 원인에는 프라이빗 뱅커(PB)의 낮은 기여도가 원인 중 하나였으며, PB를 대체할 디지털 채널 등 비용 구조 개편이 논의

■ 코로나19는 설상가상으로 유럽 프라이빗 뱅킹 부문에 장기 침체를 가져올 전망


- 2020년 1분기 이익은 시장 변동에 의한 거래량 급증으로 회복하였으나, 고객들이 자산의 3%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며 2분기 수익이 급감
 - 1분기 관리자산은 10% 감소했으나 거래량 급증으로 유럽은행 이익이 7% 증가
- 코로나19로 2020년 유럽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5% 수익감소와 2% 영업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C/I 비율 100%가 넘는 부킹 센터가 32개로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0년의 회복기가 소요됐으며 이번에도 장기화 예상

[1] The future of private banking in Europe: Preparing for accelerated change, McKinsey,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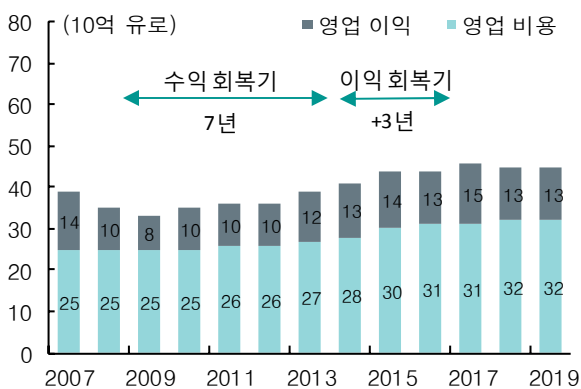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에는 변화된 트렌드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

- 포스트 코로나에는 저금리 기조, 채널 디지털화, 직원 재택근무 등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며, 유럽 프라이빗 뱅크는 이 3가지 트렌드 변화에 주의할 필요
- (최우선 전략) 고객 멀티채널 제공, 기술을 이용한 고객 관계 관리 방안 재구축, 기술 혁신 가속화 등 기술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고객 경험을 제공
 - 멀티채널 제공 시, 보안유지를 중점으로 옴니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이 필요
 - 고객 관계 관리 방안에는 고객 맞춤형 및 고객 셀프형 서비스가 중요
- (중기 전략) 프론트 직원의 보상체계 변경, 핵심 서비스 end-to-end 제공, 애자일 업무 도입 등 영업 모델을 대대적으로 변경
 - 프론트 직원의 보상 체계는 고객 디지털 확산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 지표 및 이에 맞는 인센티브 구조 구축이 중요
- (장기 전략) 목적이 분명한 경영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은행의 비전을 경영 목표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고객 가치 제공이 필요

■ 국내 프라이빗 뱅크는 트렌드 변화와 기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채널 다각화가 필요

- 코로나19로 디지털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프라이빗 뱅크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전략 추진이 바람직
- 국내 고연령 PB고객은 여전히 대면 채널을 선호함에 따라 대면 채널 강화와 저연령 고객 확보를 위한 비대면 채널의 점진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 국내 프라이빗 뱅크는 PB고객 선호에 적합한 옴니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이 필요하며 보안유지, 신뢰성, 편의성 등 확보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가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라이빗 뱅킹 부문 회복기



자료 : McKinsey

■ 유럽 프라이빗 뱅크 전략 우선순위

(최우선 전략) 기술 중심 고객 경험 제공		
1. 멀티 채널 고객 경험 제공	2. 고객 관계 관리 방안 재구축 (기술 활용)	3. 기술 혁신 가속화
(중기 전략) 영업 모델 재구축		
4. 프론트 직원 보상체계 변경	5. 핵심 서비스 end-to-end 제공 설계	6. 애자일 업무 방식을 적용한 조직 개편
(장기 전략) 장기적 경영 목표 수립		
7. 은행 장기 비전 반영	8. 전체적 관점 고객 가치 제공	9. 지속가능한 가치 제공

자료 : McKinsey

금리: 우호적인 수급이 채권 강세를 견인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7월 FOMC의 완화적 스탠스 재확인과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경기 부양책 합의 난항으로 주요국 금리가 하락했다. 국내 금리 역시 대외금리 하락과 기재부의 장기채 발행 비중 축소 조절 등으로 장기영역 중심으로 하락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과 대내외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채권 강세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도 국채 발행 부담 완화와 기관 및 외국인의 견조한 채권 매수가 맞물려 시중금리는 낮아진 레인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국 경제지표 악화와 연준의 완화적 정책 스탠스 등으로 대외금리 하락

- EU가 2021~27년 중기예산 및 유럽회복기금(3,900억유로 보조금 + 3,600억 유로 대출)에 합의하면서 유로지역 경기회복은 물론 재정통합 진전에 대한 기대 부각
 - 이에 취약국 리스크가 완화되며 伊 국채 10년 금리는 3월래 처음으로 1% 하회
- 미국 2Q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32.9%로 급락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 심화와 주간 신규보험청구건수 2주 연속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 확대
 - 나아가 4차 재정 부양책 역시 실업보험과 급여세 면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미국 3년과 5년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
- 주요국 금리는 美·獨 GDP 성장률 악화,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미국 재정 부양책 합의 난항 등으로 하락(美·獨 국채 10년(%): 7.17일 0.63/-0.44→7.30일 0.56/-0.54)


■ 국내 시중금리는 장기채 발행 비중 축소 발표와 우호적 수급으로 하락

- 2/4분기 성장률(-3.3%, QoQ)이 예상 수준(-2%대 초중반)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6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전기대비 증가해 경기 반등 기대가 부각
 - 산업활동(%), MoM): 전산업생산 4.2, 소매판매 2.4, 설비투자 5.4, 건설기성 0.4
- 한은은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정책을 7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나 단기 잉여자금 확대와 기관들의 캐리 수요로 초단기영역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을 하회
- 10년물 이상 장기금리 역시 장기채 발행물량 축소 계획과 외국인 채권 매수 등으로 큰 폭 하락(국고 1/3/10년(%)) 7.17일 0.58/0.81/1.35→7.30일 0.56/0.80/1.28)
 - 특히 외국인은 7월에도 채권을 5.9조원 순매수해 보유 잔고가 150조원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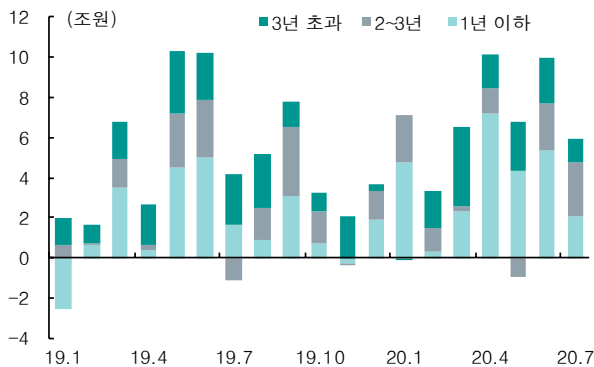
■ 7월 FOMC, 단기간 내 통화정책체계와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언급

- FOMC는 경제가 코로나19 향방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판단 하에 완전고용과 물가목표 궤도 안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현 정책 기초를 유지할 것을 시사
- 특히 파월 의장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디스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상당기간 물가 하방압력이 이어질 것이라 진단
 - 경제활동과 고용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연초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도 평가
- 또한 통화정책체계와 관련한 연준 내부 검토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을 시사해 차기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수단이 언급될 수 있다는 기대 부상
 - 연준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지속과 기준금리 운용 여력 제한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물가안정목표와 통화정책 수단, 커뮤니케이션 관련 회의를 지속
- 물가목표제 수정(평균인플레이션 타게팅 등으로 전환)과 물가와 연계된 포워드가 이던스 도입 등이 예상되나 단기간에 수익률곡선통제 도입에는 신중할 전망
 - 수익률곡선통제는 대규모 국채 매입 없이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연준의 자산 규모 조절에 긍정적이나 QE와의 정책 조합 측면에서 논의가 부족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금리 하락압력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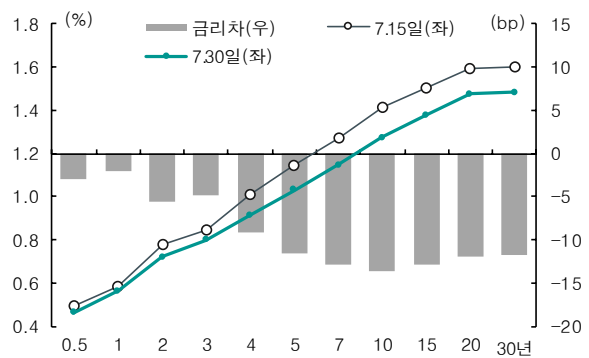
- 7.24일부터 A급 이하 회사채와 CP 매입 기구(SPV)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스프레드 축소가 제한되었던 비우량 크레딧물의 투자 심리 회복 여부를 주시
 -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도 예상보다 완화됨에 따라 여전채 스프레드 축소 요인
- 장기채 발행 부담이 완화되고 기관들의 견조한 수요도 뒷받침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장기화에 따른 해외채권 강세도 맞물려 금리 하향안정 흐름 지속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75~0.88%, 1.20%~1.40% 범위로 예상 

■ 외국인 원화채 순매수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국고채 수익률 곡선



자료 : Bondweb

외환: 해밀턴 모멘트, 유로화 회복의 시작?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달러인덱스(DXY)가 2년래 최저치로 하락하며 달러화가 가파른 약세를 시현하였다. 달러화 약세의 주요 동인은 유로화 강세이다. 유럽의 미국 대비 양호한 코로나 대응, 고용 상황에 더하여 EU 회복기금 합의 도출이 유로화 강세의 기폭제가 되었다. 모멘텀이 실종되었던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가파른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를 하회하였다.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속도 조절 국면을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85~1,195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달러화 약세로 하방 압력 높아지며 1,190원을 하회

- 유로화 랠리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보다 가시화된 백신 개발 소식이 위험 선호 심리를 강화하며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
- 그러나 미중 긴장에 따른 위안화 지지력, 2Q GDP성장률(QoQ -3.2%) 등 실망스러운 국내 경제지표 결과로 1,19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력을 보임
- 이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확대, 통화 완화 기조 지속을 확인한 7월 FOMC,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키우며 1,190원을 하회
 - 한편 6월말 거주자 외화 예금은 달러 저가매수 수요 및 코로나 불확실성에 따른 개인 외화예금 확대 결과 \$845.3억원(MoM +\$36.1억)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 가파른 달러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는 제한된 강세 시현

- 달러인덱스는 EU 회복기금 합의에 따른 유로화 랠리, 백신 개발 기대, 향후 미국 경기의 상대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으로 2년래 최저치(93pt)로 급락
 - 7월 FOMC에서는 정책 변화는 부재하였으나, 향후 통화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통화 스왑라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에 하방압력 제공
- 달러/유로 환율은 EU 회복기금 및 중기예산안 합의 성공 이후 유로존 해체 우려 완화 및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로 2년래 최고치인 유로당 1.18달러대로 급등
 - 독일 2Q GDP성장률은 사상최저치인 -10.1%(QoQ)를 기록했으나 유로화 영향 제한
- 위안/달러 환율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中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중국 공판 폐쇄 등 미중 긴장이 이어지면서 달러당 7.0위안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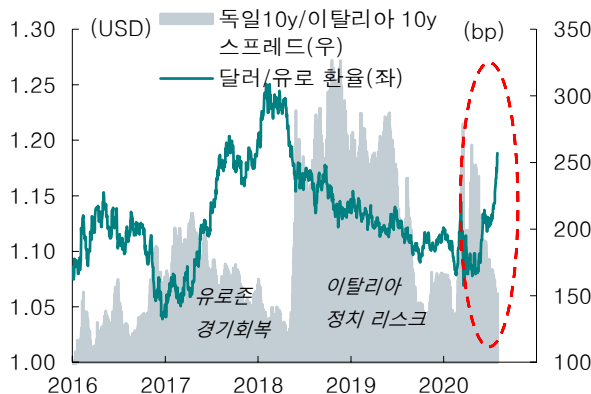
■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합의에 따른 유로화에 대한 영향 점검

- 7.21일, EU 27개국은 공동채권 발행과 개별국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다음 3가지 근거로 유로화 강세 기초 지속을 전망
 - 회복기금과 동시에 1.07조 유로 규모의 '21~27년 중기예산안 합의에도 성공
- (재정위기 우려 완화) 보조금의 70%를 2021~22년 집중해 취약국을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유로존 해체 불안 및 남유럽 취약국 재정 위기 가능성을 완화
 - 일각에서는 향후 EU회복기금을 EU통합의 단초를 제공한 '해밀턴 모멘트'로 평가
- (채권 자금 유입)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7,500억유로 규모의 초우량 채권¹¹⁾을 발행 예정이며, 이는 소버린 스프레드 완화 및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
 - '21~22년 2,612억 유로씩, '23년 2,276억 유로 발행이 예상되며, 이는 독일 국채의 66.5%에 상당하는 규모로 유로화 표시 AAA채권의 14.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호한 경상수지) 유로존은 경상수지 최대 흑자국으로 \$3,000억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회. 저유가 등에 힘입어 흑자 기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유로존이 가진 구조적 결함(취약국 리스크 재발 가능성, 회원국 간 갈등, 고용경직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선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 한 유럽 경제의 근본적 체질 변화 및 유로화 장기 강세 기초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185~1,195원을 중심으로 등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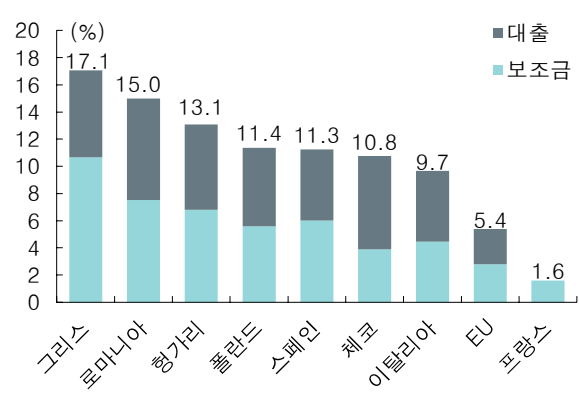
- 유로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 흐름이 기술적으로 속도 조절을 보이고, 미중 긴장에 따른 위안/달러 환율 지지력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
 - 차주 美 추가부양책 합의 여부, 미중 불확실성, 7월 美 고용보고서에 주목 

■ 독일-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와 유로화 추세



자료 : Bloomberg

■ 국가별 EU 회복기금 배분(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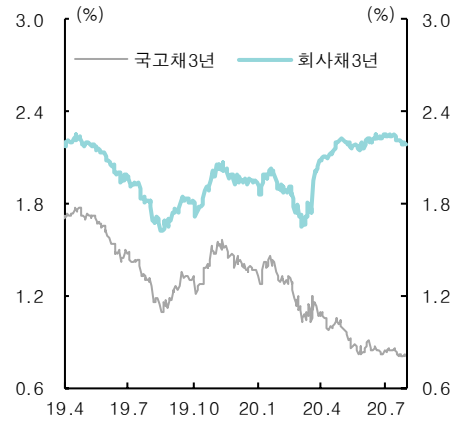
주 : 2019년 명목 GDP기준으로 추산
자료 : EC, Eurostat

[1] 초국가 기관이 발행한 수프라(Supranational) 채권으로 EU내 EIB 등 기존 다른 수프라 채권 대비 금리가 높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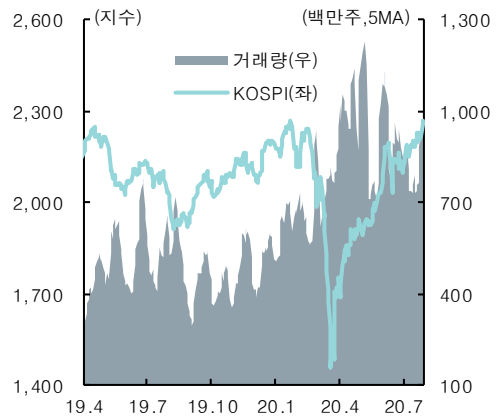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6월말	0.57	0.79	0.82	2.25	0.84	1.11
7월 24일	0.48	0.78	0.74	2.19	0.80	1.05
7월 27일	0.49	0.78	0.74	2.19	0.80	1.05
7월 28일	0.47	0.78	0.74	2.19	0.81	1.07
7월 29일	0.48	0.78	0.74	2.19	0.81	1.06
7월 30일	0.49	0.78	0.73	2.18	0.80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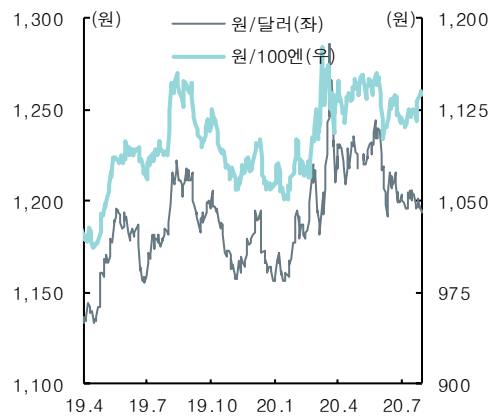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6월말	2,108.3	116,991	709	-733
7월 24일	2,200.4	171,569	1,001	841
7월 27일	2,217.9	142,569	929	1,677
7월 28일	2,257.0	175,170	867	13,113
7월 29일	2,263.2	155,006	899	2,980
7월 30일	2,267.0	135,502	713	2,228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6월말	1,203.0	1,114.4	170.3	1,351.7
7월 24일	1,201.5	1,131.9	171.2	1,400.3
7월 27일	1,196.1	1,134.9	171.0	1,405.6
7월 28일	1,196.9	1,138.5	171.0	1,402.2
7월 29일	1,193.1	1,137.1	170.4	1,406.8
7월 30일	1,194.4	1,140.2	170.4	1,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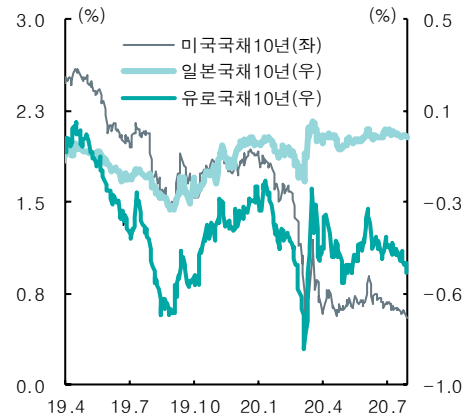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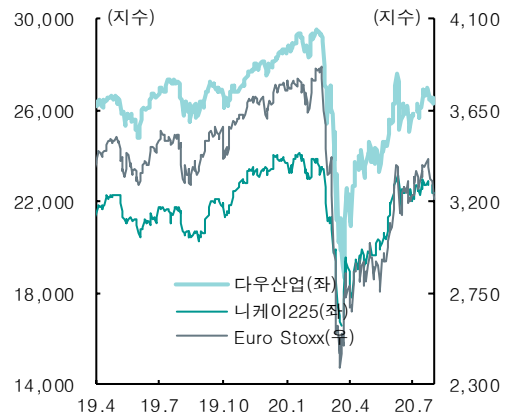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6월말	0.08	0.30	0.15	0.66	0.05	-0.40
7월 24일	0.09	0.25	0.15	0.59	0.02	-0.49
7월 27일	0.09	0.27	0.15	0.62	0.02	-0.51
7월 28일	0.10	0.27	0.14	0.58	0.02	-0.50
7월 29일	0.10	0.26	0.13	0.57	0.02	-0.54
7월 30일	0.10	0.25	0.12	0.55	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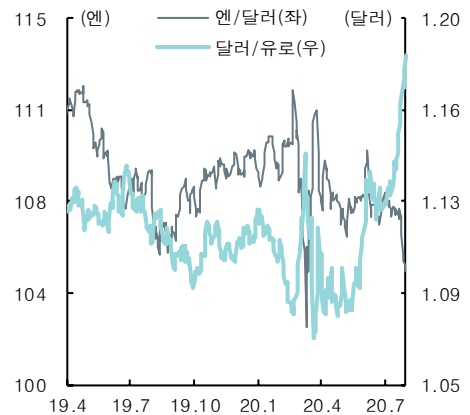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6월말	25,812.9	22,288.1	2,984.7	3,234.1
7월 24일	26,469.9	-	3,196.8	3,310.9
7월 27일	26,584.8	22,715.9	3,205.2	3,302.8
7월 28일	26,379.3	22,657.4	3,228.0	3,303.6
7월 29일	26,539.6	22,397.1	3,294.6	3,300.2
7월 30일	26,313.7	22,339.2	3,286.8	3,208.2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6월말	107.87	1.124	42.1	1,800.5
7월 24일	106.12	1.165	43.1	1,897.5
7월 27일	105.35	1.175	43.1	1,931.0
7월 28일	105.09	1.172	43.1	1,944.6
7월 29일	104.91	1.179	43.3	1,953.4
7월 30일	104.67	1.185	43.1	1,966.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6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8월 1일 인쇄

2020년 8월 3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6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